

칭찬인가? 책망인가?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214-534-7141)

칭찬인가? 책망인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 칭찬이 예수님의 칭찬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최후 심판을 위해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 그분이 무엇을 칭찬하셨고 무엇을 꾸중하셨는지 미리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각자나 교회가 어떡해야 하는지 매우 난감할 것이다. 오해하여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때늦은 후회와 통곡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먼저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교회와 성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이었다.

우리가 칭찬과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분은 우리 부모님도, 학교의 선생님이나, 직장의 상사도, 목사님이나 교인들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생사와 상급이 걸려있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성적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성적은 나중에 최후 심판대 앞에 가서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리시는 예수님의 판단이다.

보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그 말씀을 하신 그 당시에 존재하던 교회들과 성도들이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교회를 평가하고 계심을 잊지 말자. 나중에 한꺼번에 베풀치기로 공부해서 점수 잘 받겠다는 생각은 버리자. “나중에 성공하여 돈 많이 벌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겠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가 최종 성적과 미래와 영원을 좌우한다. 그것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예수님 앞에 어떤 칭찬과 책망을 듣는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이거나 완전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번 부모님께 책망만 받아 거기에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이 지상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격려가 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잣대로만 우리를 재시느라 늘 잘 해도 야단만 치는 분이시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꾸중밖에 들을 것이 없다고 해서 공부하는 시늉만 내는 성도들에게 “아니다! 나는 그런 너희 주님이 아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보라! 그들을 내가 얼마나 칭찬하였는지를 생각해보라! 나는 칭찬과 상에 인색한 부모가 아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잘 했다 칭찬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계기로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케 하는 자가 아니더냐? 심지어 너희들의 신실한 믿음과 진실됨과 충성에 대하여 영생과 썩지 않는 면류관과 상급까지 주는, 어떻게 보면 상을 싸놓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풍성한 주님이란다. 그러니 혹시라도 나를 오해해서 땅에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도무지 일도 안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이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